

■ 안철수, 호남 민생투어 첫날 지역민 표정

호남 발전 대안없는 '빈손행보' 아쉬움

지역 균형발전도 원론적 입장만 제시

"양식장 등 태풍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3일 여수와 순천, 영암, 목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호남 민생투어를 시작했지만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광주·전남 8대 특별 전략' 등 구체적인 호남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서운함에 대해 솔직한 사과로 봄을 낮추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에 비해 '진정성과 정책적' 측면에서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광주를 방문하는 안후보가 호남의 경제적 소외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지원책으로) 풍수해 보험에 있긴 하지만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도 많고 지원액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들었다"며 "처음 도입했을 때는 정말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였지만 어느 정도 시행된 만큼 재점검해서 현실에 맞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태풍 피해를 본 여수 송도마을의 가득리 양식장을 살펴본 뒤, "와서 보니까 복구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심각성은 여전해 참 마음이 아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모두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이것

(지역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차츰 발표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후보의 발언은 지난달 26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호남의 현실에 대해 지금까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주자로서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설익은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그림을 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호남의 특수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늦게 영암 대불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 사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목포에서는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종혁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인문카페 창비에서 열린 여성(女心)집기 간담회에서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에게 직접한 요리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女心=文心" 문재인 여성 표심잡기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들과 소통...국공립 반값등록금 실현 등 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을 만나 여성 표심잡기에 공을 들였다.

지난주 호남 방문이 속초 이후 문후보의 지지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발표를 신속히 재개,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정책적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과의 가을 데이트 "女心, 文心"'이라는 제목의 이 간담회는 명절 기간 집안일로 고생한 여성들의 고충과 애환을 들으면서 여성 유권자들의 지침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힐링행보'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이 모임은 명절조차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여성들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람의 절반인 여성의 대접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도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송편으로 직접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대접한 그는 여성들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답했다.

문 후보는 사립대학에 다니느라 등록금과 주거문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는 지방 출신 여성에게 "내년에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1인 가구 여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일부를 공공원룸으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문 후보는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기관 등의 시설이 네트워크를 이뤄 돌봄 서비스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의 공동대표 15

명과 공동대변인 2명 등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공동대표에는 이학영 의원과 시인 안도현씨,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외어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이용선 전 민주당 공동대표,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 소통위원장 등 당내 인사가 추가됐다.

외부인사로는 작곡가 김형석씨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네빵집 사장으로 유명한 고재영씨,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김효진 아태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캠프 공동대변인은 K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정아 중앙대 객원교수와 만화가 백무현 전 서울신문 편집국 화백이 맡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 검증공세에 강경대응

논문표절 의혹 제기 언론사 사과 요구 등 정면돌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추석 연휴 전부터 본격 재개된 검증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달 19일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히 대응할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네거티브, 악의적인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정치권 최악의 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때부터 예견됐다.

우선 안 후보 측은 일부 언론이 1990년 서울대 의대 박사학위 논문은 같은 대학교서 도 교수의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하자 이를 제기한 언론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캡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 "베꼈다는 부분을 겹쳐놓고 같은 부분을 찾아봤으나 공통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석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견을 공개하며 반박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문-안 단일화 87년兩金 상황과 달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동행2부부장'인 강기정 최고위원은 3일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단일화에 실패한) 1987년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단일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흥미명입니다'에 출연, "두 분 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시대가 두 분을 다 불러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길 분들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단일화를 하자 말자, 또는 방법을 어떻게 하자 그런 시기는 아니다"며 "정치쇄신, 민생정책에 대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국민이 어떤 방식과 시점을 선택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 후보가 검증문제에 대해 "검증해야 할 영역에서는 국정감사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시대가 두 분을 다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찬종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국주련은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제3세력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설립된 단체로 신국주 전 동국대 총장과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 분야 학자와 전문가, NGO가 모여 지난달 14일 발족한 단체다.

특히, 이번 의총은 당내 경제민주화 운동과 이관우 대선 후보의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여성들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람의 절반인 여성의 대접받지 못한다면

새누리 오늘 경제민주화 의총

박근혜 공약 이견 조율

새누리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당내에선 제발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종인 국민행복진흥원

주화실천모임(경실도)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당내에선 제발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종인 국민행복진흥원

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협의에汲んで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제 민주화 논란 교통정리 필요성을 제기한 박 후보의 의총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의 의총에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법원판결문
- 각종채권
- 물품대금
- 대여금
- 운송료
- 구상금
- 공사대금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별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경매상담

1.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 특수물건 해결방법 제시
3. 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4. 단독/공동투자 가능
5. 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소액투자자 대환영!

친절상담 H. 010-3605-5000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온천 모텔)	화정동(예식장)	두암동(목욕탕)	소래동(독서실)	상촌동(원룸)	화순도곡(무인텔)	월계동(근린시설)
대 2324m² 건 42480m² 김정기 42억7천 최저가 9억7천	대 1094m² 건 44489m² 김정기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대 670m² 건 1256m² 김정기 12억4천 최저가 5억3천	대 661m² 건 1439m² 김정기 59억3천 최저가 3억7천	대 294m² 건 1494m² 김정기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대 1094m² 건 2628m² 김정기 69억3천 최저가 4억4천	대 446m² 건 269m² 김정기 6억3천 최저가 4억4천
대지 142평 □ 건물 303평 △ 김정기 10억 △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김정기 99억4천 △ 매매가 38억(협의후결정)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김정기 79160만 △ 매매가 59억(협의후결정)	대지 1482평 □ 건물 7097평 △ 김정기 19억2천 △ 매매가 14억(협의후결정)	대지 1482평 □ 건물 1031평 △ 김정기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협의후결정)	대지 3102평 □ 건물 1656평 △ 김정기 49억 △ 매매가 39억(협의후결정)	대지 2710평 □ 건물 1826평 △ 김정기 17억7천 △ 매매가 12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렉스)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김정기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설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김정기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협의후결정)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김정기 41억5천 △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김정기 79160만 △ 매매가 59억(협의후결정)	△ 대지 1482평 □ 건물 873평 △ 김정기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협의후결정)	△ 대지 1094m² 건 22	